

1위
ABC 공인 유류·방화방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첫 딸’ 품은 채은성 ‘4번 본색’

키움전 2안타 3타점 볼꽃...LG 위닝시리즈 진두지휘



LG 채은성은 27일 소중한 첫 딸을 얻은 뒤 이튿날 곧장 복귀해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가장의 책임감을 더하니 방망이도 더 뜨거워졌다. 30일 잠실 키움전 2회말 2사 만루서 3타점 2루타를 터트린 뒤 환호하는 채은성.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첫 딸 얻은 후 3경기 연속 멀티히트
채은성 “아빠가 되니 책임감 달라”
류지현감독 “채은성이 분위기 주도”



눈에 보이는 변화는 하나, 호적뿐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무형의 변화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채은성(31·LG 트윈스)이 득녀 후 맹타를 휘두르며 팀의 위닝시리즈에 앞장섰다.

LG는 30일 잠실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8-2로 이겨 위닝시리즈를 완성했다. 선발투수 앤드류 수아레즈가 7이닝 6안타 1홈런 2볼넷 4삼진 2실점으로 시즌 6승(2패)째를 신고했고, 타선은 장단 9안타 7볼넷을 묶어 8득점으로 마운드를 지원했다.

중심은 채은성이었다. 4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장해 5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번 3연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13타수 7안타

4타점 3득점의 활약이다. 30일 경기 후 류지현 LG 감독이 “이번 시리즈는 채은성의 기운이 팀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말할 정도로 화끈한 타격감을 뽐냈다.

채은성은 26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황급히 서울에 올라갔다. 전날(25일) 부산 원정길에 동행했으나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경조사 휴가를 썼고, 채은성은 27일 소중한 첫 딸을 얻었다. 경조사 휴가는 최대 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은성은 이틀만 사용한 뒤 28일 키움전을 앞두고 팀에 합류했다. 류 감독은 “채은성 스스로의 의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강한 의지는 그라운드에서 그대로 표현됐다. 공교롭게도 채은성의 딸이 세상 빛을 본 5월 27일은 채은성의 1군 데뷔일과 같다. 여러모로 복명인 셈이다. 채은성은 ‘아빠’로 나선 첫 경기인 28일(3-1 승) 4타수 2안타 2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눈에 띄는 점은 도루였다. 2회말 2차레나 베이스를 훔쳤다. 채은성의 1경기 2도루는 데뷔 후 처음이었다.

달아오른 방망이는 식지 않았다. 채은성은 29일(2-7 패)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30일 다시 승리에 앞장섰다. 그는 “태어난 직후에만 안아보고 이후에는 유리벽 사이로 지켜보기만 해서 실감이 잘 안 난다. 하지만 확실히 아버지가 되니 느낌이 다르다”며 의지를 다졌다.

LG는 올 시즌 초반 타자들의 집단 슬럼프로 고민을 안고 있다. 채은성이 4번타수에서 중심을 잡아준다면 ‘출루왕’ 홍창기를 위시한 상위타선과 중하위타선의 연결고리 역할로 제격이다. 2018년 LG 역사상 단일시즌 최다 타점(119개)을 기록했을 만큼 해결사 본능은 확실한 자원이다.

채은성은 성적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실함 하나만큼은 팀 내 최고로 꼽혔다. 여기에 가장으로서 책임감까지 더해졌다. 5월 27일 이후의 채은성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될 수 있을 분위기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6면
잠실 | 최익태 기자 ing17@donga.com

제75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고교야구 왕중왕 누구냐 황금사자기 내일 팽파르

전국에서 선발된 48개 고교 14일간 열전



75회를 맞이한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6월 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우승팀 김해고를 비롯해 전국 11개 권역별 주말리그를 거친 48개교가 참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중 없이 경기가 열립니다.

SPOTV가 주요 경기를 생중계하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야구팬과 참가 고교 동문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기간 : 6월 1일(화)~14일(월)
- 장소 : 서울 목동야구장, 신원야구장(예산 일부)
-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KBSA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협찬 : SK Telecom ●방송 : SPOTV



대구FC 선수들이 3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벌어진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9라운드 홈경기 전반 43분 상대의 자책골로 1-0 리드를 잡은 뒤 기뻐하고 있다. 세징야(왼쪽 3번째)의 프리킥이 도화선이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대구 3위 점프, 전북도 제쳤다

강원 1-0 꺾고 4월 0-3 패배 완벽히 설욕
리그9경기서 8승 1무 무패질주...승점 32점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패하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느낌. 요즘 K리그1(1부) 대구FC가 그렇다. 이병근 감독이 이끄는 대구가 또 이겼다. 리그 9경기 연속 무패(8승1무), 최근 FA컵까지 포함하면 10경기 무패(9승1무)다.

대구는 30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19라운드 홈경기에서 강원FC를 1-0으로 꺾고 9승5무4패, 승점 32로 전날(29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긴 전북 현대(8승6무3패·승점 30)를 4위로 밀어내고 3위로 도약했다.

경기 내용은 조금 답답했다. 브라질 중앙 미드필더 세르지뉴가 주도한 대구의 공격 전개는 매끄럽지 않았다. 그래도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 세트피스다. 전반 43분 상대 문전 왼쪽 지역에서 날린 세징야의 날카로운 프리킥이 수비에 가담한 강원 왼쪽 윙어 김수범의 머리를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대구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KBO리그 경기결과 ▶ 30일 잠실 키움 2 : 8 LG 대전 SSG 5 : 1 한화 대구 두산 4 : 2 삼성 사직 NC 5 : 4 롯데 광주 KT 4 : 3 KIA

벙커탈출 SOS 솔루션 1879 벙커탈출 전용 유틸리티



“유틸리티와 웨지의 DNA가 결합했다.”

goguma bunker talchul
gbt SERIES

1879GOLF WWW.1879golf.com ☎ 1855-1879